



**신한금융, 인천 소외계층에 '밀 박스' 전달** 신한금융그룹은 8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호프 투게더(Hope Together) 신한 밀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신한금융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 36회 신한동해오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대회가 열리는 인천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결정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한금융 이병철 부문장(왼쪽)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남국희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보령제약-바이젬셀, 면역세포치료제 R&D 업무협약** 보령제약과 바이젬셀이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면역세포치료제의 성공적인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바이젬셀은 보유중인 3가지 면역세포치료 플랫폼기술인 '바이티어' '바이메디아' '바이레인지어'에 대한 조기 개발, 발매 후 마케팅, 글로벌시장 진출, 생산시설 구축 등의 상업화에 힘을 얻게 됐다. 보령제약 안재현 대표(왼쪽)와 바이젬셀 김태규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령제약



**하나제약, 서울대에 장학금 15억 쾌척** 하나제약 조경일 회장과 이윤하 사장이 서울대 약학대학에 '미래인재하나22장학금' 15억원을 쾌척했다. 하나제약은 서울대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시설확충기금을 기부해 지금까지 서울대에 약 38억원을 기부했다. 조경일 하나제약 회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이윤하 하나제약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대



**GS25, 유통업계 최초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GS25가 업계 최고의 상생 편의점임을 입증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8일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GS리테일(GS25)은 2016년에 신설된 '가맹업' 부문에서 편의점 업계최초로 우수 등급에 선정된 후 2018년까지 3년연속 '우수' 등급을, 2019년 유통업계 최초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GS25

**인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조기현 △기획예산실장 남경백 △인재개발실장 조인목 △사업지원실장 강석배 △감사인 안신현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하경희 △식문화개선 TF 지원근무 이장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물관리과장 변상문

**부음**

- ▲이철성 씨 별세. 이철규(르노삼성 법인팀 차장)·재종(청와대 행정관)·선혜·소연·경미·승화·선화 씨 부친상, 이동주(광영석재 대표)·김수정(전 농림부 서기관)·김기종(전 민족사관고 교사)·정형철(전 전남대 언어교육원 교수)·전국일(시우산업개발 대표)씨 장인상=8일 오전, 광주 스키야장례식장 201호, 발인 10일.

# 예술상의 가치



홍경안 역  
시시일각

터너 프라이즈(Turner Prize)를 비롯한 국립현대미술관이 매해 수여하는 '올해의 작가상' 등 국내외에는 수많은 상(賞)이 있다. 정부, 기업, 기관은 물론 심지어 정치권력과 시장 자본주의로부터의 자유로운 예술을 갈망하며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조차 시상제도를 두고 있다.

사실 가장 자유롭고 성스러운 예술과 뭔가에 등수를 매기는 상의 조합인 예술상(미술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제도권 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무대이자 창작 동기 부여라는 건설적 측면도 존재하는 반면, 경쟁을 조장하고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숭배를 강화한다는 일부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예를 들어 백남준은 자본력과 정치권력이 작동하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올림픽이 아니다"라는 말로 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예뉘려 표현한 바 있다. 모든 재산과 소유의 개념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식이 미술이었던 하랄드 제만(Harald Szeemann)처럼 "예술의 귀속과 자유"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공적 상속의 거부감을 드러낸 이도 있다.

심지어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생전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 훈장을 포함해 노벨상까지 거부하며 작품과 예술가의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지 외적 기준과 평가에 의한 승인(承認)이 아니라는 신념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상은 예술가와 예술 작품에 시장의 가치와 다른 차원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옹호 받는다. 예술을 경제성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뿐더러,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능까지 담당한다. 즉, 동시대 요구되는 시대 담론을 공공의 무대로 옹립시키거나 어떤 이슈를 촉발, 시대적 의제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술상은 참여하는 이들에게 인정을 통한 실질적 명예와 권위까지 부여한다. 비록 예술가는 명예와 권위로부터 초연해야 함을 강조했던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와 같은 사회학자도 있지만, 인정의 여부는 제도적 기반과도 맞닿으며, 매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심리적 공허함을 채워주기도 한다.

특히 예술상은 상징적 재화로서의 예술에 반경제적 기준을 적용시키며, 동시대 희박해지는 예술의 개념을 증언하고 확정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도 맡는다. 이는 당장 쥐어지는 몇 푼의 금전적 혜택이 아닌, 공동체 내 신분이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상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인정이 작동하는 사회적·제도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예술상은 문화적 환경 내지는 생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예술가들이 예술상에 공모하거나 선정 시 딱히 거부하지 않는 이유도 이 문화적 생태라는 측면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예술상은 그 자체로 여러 시각과 이견을 안고 있음에도 존립의 당위성을 잃지 않아 왔다.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예술의 좋고 나쁨을 구분 짓거나, 질서를 부여한다는 점, 일부 기업미술처럼 예술이 지닌 아우라(aura)와 브랜드를 교환함으로써 부족한 교양을 메우는 사례도 없진 않으나, 현실적 환경 내에선 창작의 동기부여가 되는 등 유익한 측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현존하는 그 다양한 예술상을 의미적으로 판단하려면 무엇보다 예술에 대한 존중 의식을 살펴야 한다. 예술에 대한 존중은 예술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는 상의 참다운 가치를 생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만약 그게 없다면 상이란 그저 권위와 문화 권력을 얻기 위한 싸구려 선심에 불과해진다. 받는 이들에게도 그런 단지 하등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 위니아대우, 중남미·유럽서 사회공헌 강화

칠레·페루, 의료진·저소득층 대상 위니아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기부

위니아대우가 코로나19와 고군분투하는 중남미와 유럽 등 현지에서 지원을 이어가며 위니아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

위니아대우는 칠레와 페루 의료진과 소방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위니아는 대우위니아그룹의 해외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가 25만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중남미 국가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기부 활동에 나섰다.

위니아는 먼저 칠레의 코로나 19 치료지정 응급실 의료진에게 위니아 냉장고를 전달했다. 또 격리 강화로 인해 5개월 동안 소방서 내에 상주 중인 칠레 산티아고 소방관들의 위생을 위해 '위니아 전자동 세탁기'를 선물했다.



위니아대우가 냉장고와 물품 등을 지원하는 모습. /위니아대우

위니아 냉장고를 전달받은 해당 병동의 간호사들은 감사의 의미를 담아 SNS에 인증 포스팅을 게재하기도 했다.

페루의 저소득층에게도 위니아 냉장고와 마스크 4000장 및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 위니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페루의 공중과 방송 프로그램인 '영향

력 있는 여성들'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 위니아대우는 지난 6월에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멕시코사회보험청(IMSS)에 10만불을 기부하기도 했다. IMSS는 멕시코 전역에 1만4398개 진료소와 752개 병원, 총 11만4500명의 료진을 두는 멕시코 보건의 핵심기관이자 대표 의료 기관이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 아이파크몰 '통계의 날' 통계청장 표창

품목별 매출데이터·통계수치 제공

HDC아이파크몰이 지난 1일 '제26회 통계의 날 기념 통계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통계 작성에 기여한 공로로 통계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통계 조사에 대한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됐으며 이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아이파크몰은 매일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소매업 동향 조사에 유통업체 소비현황 파악을 위한 품목 분류별 매출 데이터 및 통계 수치를 제공 하고 있다.

아이파크몰 관계자는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 정확한 통계 작성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통계청장 표창을 받게 됐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